



청운관 앞 '녹원' 소나무 폭우로 쓰러져

지난달 28일 저녁 7시 30분경, 쏟아진 폭우로 녹원 앞 소나무가 차도 위로 쓰러져 아찔한 광경을 연출했다. 관리팀 측은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약해진 지반이 소나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위기의 'ABEEK', 존폐기로에 서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학사제도 개편 앞두고 공과대, 전자정보대 입장차… 실효성 논란도 여전

ABEEK 존폐 논란

이시은 기자 dtldms77@khu.ac.kr
장연수 기자 ys0501994@khu.ac.kr

2016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ABEEK(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ABEEK은 대상자만 공학계열 재적 인원의 대부분인 7000명을 훌쩍 넘어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그간 이 프로그램은 입학 시부터 자동으로 이수가 시작돼 수강 커리큘럼 지정부터 실험·설계과목 개설 인준까지 학사 전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ABEEK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에서 각 전공 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공학 학위를 인준한다. 현재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공학인 육성'을 취지로 국내 42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ABEEK을 통해 인증받은 학위는 해외 14개 국가에서 통용되며 취업 시 일부 기업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우리학교의 경우 2009년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를 제외한 공과대학의 8개 학과와 전자정보대학의 전자·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지정한 상태다.

교내 유지여부 논란은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우리학교는 작년 7월 공인원으로부터 2016년도부터 '단일 프로그램 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김경희과장은 "일반형 커리큘럼과 ABEEK형 커리큘럼 두 체계를 ABEEK형 하나로 합치라는 내용이었다"며 "이 경우 기존에 학교에서 세운 커리큘럼인 일반형 커리큘럼이 사라지기 때문에 'ABEEK 포기'라는 개념 없이 전원이 ABEEK을 이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학과 내부에서 ABEEK에 관련된 여러 회의가 있어왔지만 논

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부터다. 결정을 미루고 있던 두 단과대학이 결국 내년 학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더 이상 결정을 유보할 수 없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과대학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전자정보대학은 '유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5면으로 이어짐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

모집분야 : 영상뉴스·소셜미디어·사진·일반기자
모집기간 : 9월 1일~9월 11일
지원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www.mediakhu.ac.kr/khunews)에서 신청

문명,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①

고원 후마니타스 칼리지

#. 후마니타스칼리지와 대학주보가 공동연재하는 '고전의 사계'가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으로 바뀝니다.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은 고전에 대한 설명이 아닌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인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강조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배경과 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명'은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이 용어는 중농 주의자였던 미라보 후작이 자신의 저서 『인간의 친구 또는 인구론』(1757)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돌바크, 몽테스키외,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어권에서도 아담 퍼거슨의 『시민 사회의 역사에 관한 서론』(1767), 존 밀리의 『사회에서 신분구별에 관한 고찰』(177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 등에 문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처럼 문명이라는 개념의 탄생

과 확산에는 계몽주의와 진보주의의 흐름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계몽주의자들은 문명을 '인간 이성의 발현' 혹은 '인간성의 진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문명(civilis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형용사 civil(예의바른, 시민의)은 13세기부터, 동사 civiliser(교화하다, 개화하다)는 16세기 후반부터 쓰이고 있었다. 특히 고어분사 civilise(세련된, 개화하는)는 17세기 프랑스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라틴어 civitas(도시)로부터 유래하며 중세말기 프랑스 사회에서 예의

를 갖춘 세련된 사람들, 즉 궁정의 교양인들을 투박하고 거친 하류층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단어의 역사는 문명이라는 용어가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문명은 자연의 반대 말이면서 또한 야만의 반대말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지만 계몽주의자들은 점차 자연과 야만을 동일시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었다. 문명은 인류가 최고로 발전한 상태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 〈명〉

〈뉴스팀장〉
이시은(컴퓨터공학 2011)

〈파트장〉
권윤지(정치외교학 2014)
황경선(철학 2014)

박기윤(경영학 2014)

〈정기자〉
강경진(스페인어학 2014)
고상아(연극영화학 2015)
김도엽(정치외교학 2012)
김종완(화학 2015)
양진원(생물학 2014)
이소진(일본어학 2014)
장연수(중국어학 2014)
조민호(관공학부 2015)
최재원(철학 2015)

강규연(의류디자인학 2014)
김규래(경영학 2012)
김예준(일본어학 2015)
류제원(지리학 2015)
이성민(프랑스어학 2015)
이수형(경제학 2015)
정혜빈(원예생명공학 2015)
최병현(경영학 2015)